수능 이후…대입 정시전략

나에게 유리한 대학·전형 공략하라

하향안전지원 추세…경쟁력 높아질 듯
수능성적 반영 방법 꼼꼼히 따져봐야

수능이 끝난 후부터는 점수가 아니라 전략으로 대입 성패가 갈린다.

입시 전문가들은 어떤 진학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점수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유웨이중앙교육이 추천하는 입시전략을 간추린다.

◇판세를 읽어라=올 수능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 감소했지만, 수험생 증가로 경쟁률 상승이 점쳐진다. 수능이 어려웠던 탓에 심화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올해 수시 모집 증가 추세가 강화돼 올해 처음으로 수시 선발 비중이 60%를 넘어섰고 정시에서는 2010학년도보다 9961명 감소한 14만9156(39.2%)명을 선발한다. 경희대를 제외한 주요대학 정시 모집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 올해 수능 원서 접수 인원은 사상 최대인 70만명을 넘어가면서 정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44명을 선발했던 연세대 경영학과는 올해 63명을 선발하는 등 상위권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이 눈에 띄게 줄면서 안전지원으로 중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 출제 범위의 변화로 수험생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안전 지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요대의 경우 중하위권 학과의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수능 결과에 좌절 금물=수능·학생부·대학별 고사 등 중심 전형 요소별로 유형화하여 나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성적으로 결과를 예단할 필요없다.

학생부, 논술 및 면접, 서류 등 다양한 전형 요소가 활용되는 수시 모집과 달리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전형 유형 역시 일반전형 중심이다.

정시 모집이라고 해도 각 대학의 인재상 및 선발 목적에 따라 모집군별로 수능·학생부·면접 등 중심 전형 요소를 달리 적용하여 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희망 대학의 군별 전형 방법을 파악해두고 내 성적 유형에 맞는 전형을 공략해야 한다

◇자신에 유리한 대학·전형 찾아야=가채점 결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정했다면 모집 군별로 지원 희망 대학의 전형 방법을 분석, 모집 군별로 가장 유리한 지원 대학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울 때다. 급선무는 전년도의 성적대별 군별 지원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위권은 경쟁이 치열한 성적대이므로 수능 비중이 큰 정시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자연계로 교차 지원을 할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불리를 정확히 따져보도록 하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년 성과 바탕 글로벌 인재 키우겠다”

취임 3주년 맞은 전호종 조선대학교 총장

취임 3주년을 맞은 전호종 조선대학교 총장은 ‘창의가 넘치는 자랑스러운 조선대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호종 총장은 외부적으로는 22년 임시이사체제를 청산하고 법인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2010년 조선대 정이사체제를 출범시켜 대학의 외형을 갖추고 내부적으로는 대학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 총장은 지난 3년 동안 ▲교육의 질 강화 ▲국제화 교육 ▲우수교원 확보 ▲국책사업·연구과제 유치 ▲우수학생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제화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해 대학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림과 동시에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 총장이 임기 기간 동안 가장 주력한 분야는 교육의 질 강화였다. 이를 위해 인문 교육 강화차원에서 기초교육·교양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원을 신설하고, 창의력을 깨우치고 통합적 사고를 위해 신입생 세미나, 독서클럽, 명저일기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학생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해 영어집중교육 프로그램인 ESL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했다.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책사업·연구과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3년 동아 964건에 1772억원의 외부자원을 유치했다.

전호종 총장은 “남은 1년 동안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선진화된 연구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며 “개교 100주년에 조선대학교가 동북아중심대학으로서의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도전, IT골든벨 호남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단장 양승학)이 25일 광산캠퍼스 체육관에서 광주·전남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광산업·정보가전·자동차·문화콘텐츠 등 IT관련 문제를 출제, 최후의 1인을 선발하는 ‘도전, IT골든벨’을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이길준(광주고 3)군이 골든벨을 울리며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전남 대학탐방 ④ 한국폴리텍V대학

강의실로 옮겨온 산업현장
실용기술 기업 맞춤형 교육

폴리텍대학(Polytechnic College)은 호주·영국·독일·싱가폴 등 세계적으로 ‘종합기술전문대학’으로 통용된다. 이처럼 우리지역에도 실용위주 학문으로 괄목할 만한 취업성과를 나타내는 대학이 있다. 바로 한국폴리텍V대학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올해 졸업생 취업률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지역 18개 전문대학 중 ‘한국폴리텍V대학은 88.5%로 1위’를 기록했으며, 졸업생들의 30%는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취업의 질도 좋다. 또한 내년 졸업예정자 중 이미 50%는 대기업 등으로 취업을 확정했다. 이처럼 우수한 취업 성과를 나타낸 것은 바로 기업체와 연계된 학사운영시스템과 대학특성화 전략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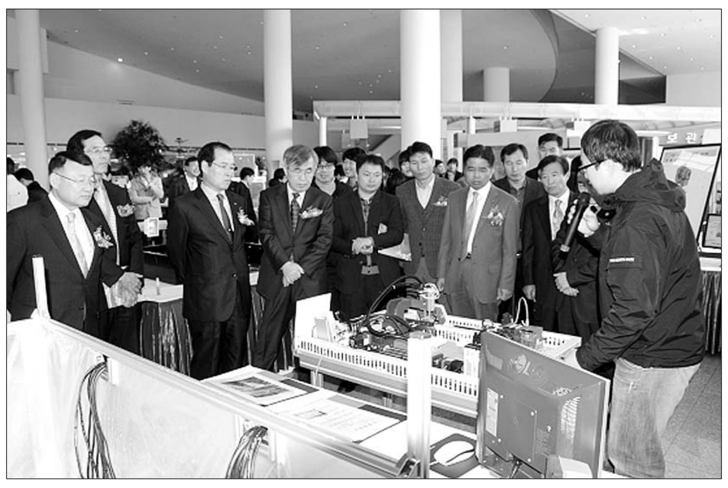
폴리텍대학은 고유 학사브랜드인 ‘FL(Factory Learn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FL system이란 기업체와 연계한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방식으로 산업 현장과의 불균형(mismatch)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강의실로 옮겨와 강의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입학 후 10~15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편성, 지도교수에 의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를 교육 받는다. 또한 산업체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 Know-how를 배운다.

교수 1인당 10개의 기업을 전담관리하는 ‘기업전담제’는 전국 3만여 기업체를 네크워크로 구축해 기업체 정보를 DB화하고 분석해 산학협력활동에 기여하는 폴리텍대학만의 특·장점이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지속적인 신기술 교육을 위해 ‘플러스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졸업 후에도 전국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산업체 요구기술들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

한국폴리텍V대학은 지역전략산업과 녹색미래신성장동력산업을 기반으로 해 지속적으로 특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광산업(LED), 가전로봇, 정밀금형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를 모두 특성화했다. 전기과와 신소재응용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자동화시스템과는 첨단로봇 및 물류 분야로, 컴퓨터응용금형과와 기계설계과는 정밀금형과 클린디젤엔진 분야로 광전자과는 LED 분야로 특성화했다.

내년 졸업생 50% 이상 대기업 등 취업 확정
전국 3만개 기업 네트워크화 산학협력 활용



한국폴리텍V대학 메카트로닉스과 학생이 최근 광주시에서 개최된 ‘2010 프로젝트 작품전시회’에서 1학기 동안 개발한 프로젝트를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지자체의 광산업 육성과 삼성전자 금형센터 준공, 한전 이전 등과 맞물려 폴리텍대학의 인력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유 학사운영시스템 운영과 대학 특성화는 대외적인 성과와도 직결된다. 한국폴리텍V대학은 지난 2007, 2009 국제기능올림픽 통합제조직종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2007~2010년 광주기능경기대회에서 43개의 메달을 수상하였다.

국제기능올림픽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은 취업시 가점으로 인정받아 질 높은 취업으로 연결된다. 또한 지난 2008년도에는 호남권 대학 중 최초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교육서비스품질 우수대학’으로 인증을 받았다.

한국폴리텍V대학의 우수한 취업성과는 ‘기업 맞춤훈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64개사와 채용예정 맞춤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교과목을 커리큘럼에 반영해 맞춤교육을 하고 있다. 맞춤교육은 기업체 전문가가 직접 교과목을 지도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맛에 꼭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진서 한국폴리텍V대학 학장은 “청년 실업난에 학생들은 취업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재가 없다고 불평한다. 현장 실무 학습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한국폴리텍V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융합형 인재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